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모르쇠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모르쇠'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

모르쇠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모르쇠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모르쇠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모롤쇠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모를쇠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모르쇠
  20세기현재
- 모롤쇠
  미상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모롤쇠, 모를쇠, 모르쇠

모르쇠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모르쇠’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모르쇠’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를 뜻하는 용언 ‘모르-’에 접미사 ‘-쇠’가 결합한 것이나 본래 ‘모르-’의 옛말 중 하나인 ‘모로-’의 활용형 ‘모로올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대 미상의 문헌에서 ‘모롤쇠, 모를쇠’로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모르쇠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모르쇠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르쇠

출처 1928 동아일보 9월 4일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도모지 모르쇠 하고 지내는 가뎡이 만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동아일보 9월 17일 조간 4면

용례 02

문헌 용례

태호는 곧 은히를 연상하엿으나 위정 또 이러케 모르쇠를 대엇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3

문헌 용례

모르쇠 名 아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모롤쇠, 모를쇠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롤쇠, 모를쇠

출처 미상 시탄사 237

용례 04

문헌 용례

移風易俗 뉘 올 듯ᄒᆞ다마ᄂᆞᆫ 일은 일 내 모롤쇠.

현대어 풀이

풍속을 바꾸는 누군가 올 듯하다마는 이룬 일을 내가 모르겠다.

출처 미상 시탄사 236

용례 05

문헌 용례

오와 내 모를쇠 이거시 뉘 타신고.

현대어 풀이

어와 내 모르겠다. 이것이 누구 탓인가?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모르쇠의 보충 설명

‘모로올쇠’는 ‘모르다’의 옛말 ‘모ᄅᆞ다’에서 2음절 모음 ‘ㆍ’가 1음절의 모음 ‘ㅗ’에 동화되어 나타난 ‘모로-’에 종결어미 ‘-ㄹ쇠’가 결합한 형태이다. 어미가 결합한 ‘모로올쇠’는 어제ᄂᆞᆫ 술을 ᄀᆞ장 먹고 正根 업서 도라오니 아므리 ᄒᆞᆫ 줄도 모로올쇠([현대어역] 어제는 술을 매우 먹고 정근 없어 돌아오니 어떻게 한 줄도 모르겠소)＜1676 첩해신어 3:28ㄱ＞와 같이 17세기부터 나타난다.

모르쇠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이동석 2019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국어사연구≫ 28
- 이동석 2011 ‘-도쇠’류 어미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39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모르쇠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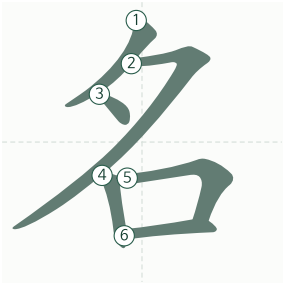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名

뜻·음 이름 명

총 6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名/

移

뜻·음 옮길 이

총 11획 · 부수 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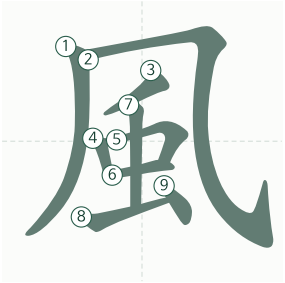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移/

風

뜻·음 바람 풍

총 9획 · 부수 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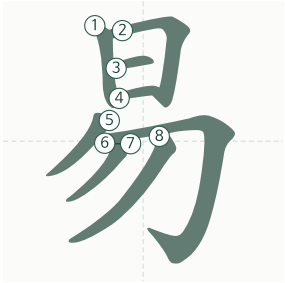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風/

易

뜻·음 바꿀 역 / 쉬울 이

총 8획 · 부수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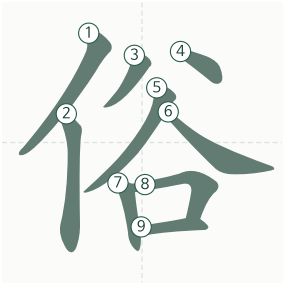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易/

俗

뜻·음 풍속 속

총 9획 · 부수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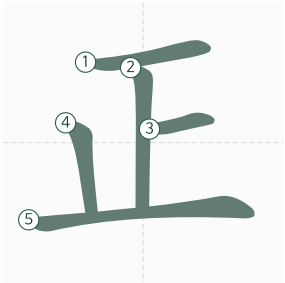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俗/

正

뜻·음 바를 정

총 5획 · 부수 止





hanja.wordrow.kr/한자/正/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2 / 2 · 7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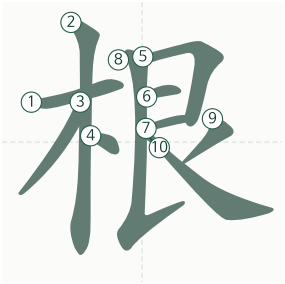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根

뜻·음 뿌리 근

총 10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根/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